

‘김상곤 혁신위’ 출범 긴장하는 호남 정치권

새정치 위원장 맡아 공천개혁
“특정지역만 몰같이 안된다”
시·도당위원장들 28일 회동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 몰가이론’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은 “혁신위는 진노 패권주의 청산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호남 몰가이라는 하책으로 혁신의 책무를 넘기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의 김상곤(사진) 전 경기도 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계파 갈등을 거듭했던 당내에서는 태풍 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위가 제시할 공천 혁신의 향배에 호남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롭게 태어나야 국민과 당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제1야당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혁신위원장 수락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인사·당무·공천 혁신의 전권을 주겠다”고 공언하며 혁신위에 당 쇄신 작업의 칼자루를 넘겼다. 혁신위는 오는 27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며 이번 주 내에 위원 선임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혁신위원회에 친노 인사 배제와 호남 국회의원 40% 교체, 4선 이상 중진 의원 용퇴 등을 주장한 조국 서울대 교수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호남 정치권은 혁신위의 공천 쇄신 향배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위의 칼날이 호남 정치권을 향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치러진 두 차례의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곡성)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 울이)이 잇따라 당선되면서 새정치연합과 지역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변화 요구가 분명하게 확인된 바

이윤석 의원의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국적인 몰가이론에는 동의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교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주 ‘호남 몰가이론’에 대한 성명서 발표 등을 추진했던 박해자 광주시장 위원장과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은 오는 28일 다시 회동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반면 혁신위의 활동이 ‘잣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위의 활동 기한이 6월까지로 못 박혀 있는데다 공천 혁신 방안을 내놓을 뿐,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천, 당무, 인사 혁신의 뚜렷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 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잠재됐던 당내 내분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내 주류 및 기득권 세력과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육참골단(살을 내주고 뼈를 끊는)의 각오가 없다면 혁신위는 과거처럼 분란만 일으키다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치공원 화려한 빛 축제

‘빛의 도시’ 광주를 형상화하기 위해 형형색색의 LED 518만개로 세계 유명 조형물 미니어처를 만들어 조성한 빛축제장이 광주시 북구 생룡동 우치공원에 들어섰다. 서석대를 축소한 주상절리·에펠탑·금문교 등 100여개의 세계 유명 건축물의 모형을 관람할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기 시작한 빛축제장은 연중 운영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선 KTX 예약 ‘별 따기’

오전 6~8시 하행선 좌석 363석 불과... 증편·대형열차로 교체 요구 쇄도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협소한 역사(驛舍), 비좁은 주차장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한 데 이어 KTX 이용객 급증으로 KTX 예약마저 ‘하늘의 별 따기’인 탓에 광주시민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에 형식적인 공문이나 구두로만 해결책을 요청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 행태로 일관해 반축을 사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양 시·도는 지난달 말부터 각각 구두와 공문

을 통해 정부 관련 부처에 호남선 KTX 증편을 건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구두로 코레일측에 KTX 증편을 요구했으며, 호남선 KTX 개통에 앞서 국토부에도 증편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호남선 KTX가 이미 평일 특정시간대·주말·휴일은 물론 연휴 등에는 일부 임시열차를 추가 투입할 정도로 매진 사례를 보이고 있는데다, 오는 7월 광주 U대회와 여름 휴가철,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이다.

오히려 호남선 KTX 증편에 적극적인 곳은 전남도다.

전남도는 최근 코레일 등에 공문을 보내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 후 KTX 일일 이용객이 기존 2만5000명에서 3만3000명으로 33.1% 증가했으나 운행 횟수는 일일 4회(9%) 늘었고 열차별 좌석 수 증가 역시 26석(0.1%)에 불과해 이용객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열차 증편을 공식 요청했다. 도는 특히 오전 6~8시 사이 하행선에 배치한 KTX산천의 좌석수

도 363석에 불과해 오전 중 여행지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하는 단체관광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931석을 보유한 구형 KTX-1으로 변경할 것’과 이에 따른 가격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레일측은 내년 하반기 수서발 KTX 개통 전까지는 증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KTX 부족 사태는 이미 호남선 KTX 개통 전부터 예견됐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코레일을 향한 이용객들의 비난이 크다.

광주시는 호남선 KTX 개통 전인 지난 2월 ‘호남선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는 대신 14편을 줄이고, 이를 서대전역~익산까지만 운행토록 한다’는 국토부와 코레일의 사실상 호남선 축소발표에 대해 되레 ‘환영한다’고 해 일부 시민의 반발을 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연내 설치한다

광주시, 도로공사와 MOU

맥쿼리 설치비 분담 등 걸림돌

민자 유료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가 개통 10년이 넘도록 통행료로 현금만 받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4월 24일자 1면)과 관련, 광주시가 하이패스 설치를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광주, 서울, 대구, 대전 등 4개 자치단체와 유료도로 하이패스 구축 MOU 체결 협약을 맺는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 구축 협약을 맺는 4개 자치단체 중 유료도로에서 현금만 받는 곳은 광주시가 유일하며,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하이패스와 접촉식 교통카드(전자지급) 시스템 등을 병행하고 있다.

하이패스 설치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협약에 참여한 자치단체에게는 하이패스 설치비 최대 30% 인하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설치비용도 총 84억5000만원 중 25억여원이 절감돼 60억원 안팎이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 사업자인 맥쿼리 등과의 설치·운영비용 분담 문제가 걸림돌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해소가 급선무인 만큼 최근 제2순환도로 사업자들과 3차례 만나 협의한 끝에 사업자측에서 현재 재정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운영비 정도는 부담하겠다는 입장까지는 확인한 상태”라며 “조만간 다시 만나 설치 비용 일부라도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치고 올 연말까지는 (하이패스)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어? 성경이 읽어지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한빛원전 바닷물 사용 연장 ▶ 6면

광주인권상 수상자 인터뷰
이니 시레가르·리오스 슘폰 ▶ 18면

15th 가슴으로 하나되는 아리따운 여정

2015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4일(일)

종 목 10km / 5km

참 가 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 념 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www.pinkcampaign.com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AMOREPACIFIC CORPORATION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후원 :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청, KBS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협찬 : 해라, 아리따움, 르까프, 55CHU